

# 공연이 주는 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멀어졌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임동혁, 가수 심센치, 크로스오버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광주를 찾아 관객과 만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성현출 관장)은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대·소극장 및 잔디광장 등 회관 일원에서 20여 팀, 총 29회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위로'이다. 코로나 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 함께 극복하고 더 높이 나아가자는 의미의 '위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광주시립예술단 공연  
광주시립예술단 공연은 광주시향, 극단, 발레단, 창극단, 합창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9월 4일 지휘자 이병욱과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소평, 퀴엘리자베스, 차이코프스키)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무대에 올라 러시아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다. 이밖에도 광주시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하이 라이트' (9월2일), '발레레조 비타민' (9월3일), 광주시립극단 판타지액션연극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9월2-6일), 광주시립창극단 '가을밤 국악한마당' (9월4일), 광주시립합창단 '가을 초입, 해 저무는 시간, 감성으로' (9월6일) 등을 각각 공연한다.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9월 2~5일  
임동혁·심센치·포르테 디 콰트로 등  
뮤지컬부터 야외 버스킹까지 29회 공연  
지역 청년예술가와 시민들 만남 무대도

◇민간예술단체 초청  
2017년 JTBC 팬텀싱어 우승팀인 팜파라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를 비롯해 뮤지컬, 연극, 퓨전국악, 가족음악극, 대중가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팀으로 구성했다.

9월2일 대극장에서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선보인다. 제5회 예그린 어워드 극본상, 제1회 한국 뮤지컬 어워드 작곡·음악 감독상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천재음악가 라흐마니노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박규원, 임병



임동혁



심센치



포르테 디 콰트로

근이 출연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는 연극 '장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9월2-3일)을 공연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원작으로 좌중우돌 100세 노인의 예측불허 모험담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음악을 넘어 문화계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된 '심센치&서사무엘 콘서트' (9월5일), 라이브 악기 연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족음악극 '리틀 뮤지션' (9월4-5일), 제10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금상을 수상한 퓨전 국악팀 '상자루' (9월6일) 공연, 버블 타이거와 함께 하는 비눗방울 퍼포먼스 '버블 매직쇼' (9월5-6일) 등을 무대에 올린다. 폐막공연은 포르테 디 콰트로가 'THE CLASSIC' (9월6일 오후 7시)으로 장식한다.

◇젊은 예술가 공연  
야외 버스킹 무대도 마련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와 시민들의 만남을 위한 무대로 9월 5-6일 이틀간 원보틀, 국악인가요, 코타그룹, 러블린지, 루나스테이션, 주로키, 쟈이 등이 각각 색다른 버스킹 무대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회관 갤러리에서는 김단비·노은영 작가가 '경계의 공간'이란 주제로 전시를 열며, 무대 뒤 대극장 투어와 관람매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도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객석거리두기로 진행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입장할 수 있다. 공연 관람료는 대극장 1만~5만원, 소극장 1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예매는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추사 김정희 '세한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보 제 180호...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씨 기증

"심사숙고 끝에 내놓았다."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91) 씨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의 최고 걸작인 국보 제180호 '세한도' (歲寒圖) 기증 의사를 밝히며 한 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일 "소장자가 지난 1월 말 박물관 측에 전화해 이같이 세한도 기증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세한도는 선비 정신이 오롯이 담긴 문인화의 걸작이다. 1844년 59세의 추사가 유배지인 제주에서 그린 그림으로, 자신이 처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매마름을 먹고 거친 필선을 이용해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세한도는 추사가 1840년부터 9년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사제의 의리를 지켜준 제자 이상적(李尙迪)을 위해 제작했다. 이상적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마다 구하기 힘든 서적을 찾아 추사에게 보내줬다. 세한도에는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의 '장무상망' (長毋相忘)이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다.

세한도에는 겨울날 소박한 집 채 좌우로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 있다. '세한'은 논어(論語) 자한(子罕) 편이 '추은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에서 따온 것이다. 이 선물을 받은 제자는 청나라 명사 16명에게 보여 찬사의 글을 받아 남겼고, 근현대에는 오세창, 정인보 등이 글을 붙여 작품의 총길이는 10m가 넘는다.

손 씨는 개성 출신 실업가 부친 손세기(1903~1983) 선생과 자신이 대를 이어 모은 손세기·손창근 컬렉션 202건 304점을 지난 2018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컬렉션에는 1447년 편찬한 한글 서적 '음비어천가' 초간본을 비롯해 겸재 정선의 '북원수회도' (北園壽會圖)가 수록된 화첩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 불공정 계약·갑질·성희롱 주장...진상조사 촉구

광주시립극단 객원 단원들 성명서

광주시립극단 객원 단원들이 불공정 계약과 상근직원의 갑질, 성희롱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 직무정지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극단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 읍무브엔 측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립극단 조연출 장도국과 배우 이다혜, 함지현, 유승원 등 4명은 지난 19일 '광주시립극단의 부조리 규탄'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극단 측은 '전우치 with 바리' 공연과 관련해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극단 연출과 무대감독이 배우들에게 갑질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극단 측이 보함을 듣지 않은 탓에 부상을 당한 한 여성 배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퇴원을 못 했을 정도"라며 극단을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연출 김도 씨가 장 씨에게 "네가 받고

있는 액수가 네가 생각해도 많지?"라며 음향 오퍼레이터 역할까지 수행할 것을 강요했고, 무대감독 김도 씨는 연습 중 발목 골절 부상을 입은 여배우 이 씨에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발이 부러지느냐", "너는 살이 더 쪼면 것 같다. 네 다리통을 보라"는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연출가는 "단원 몇몇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져 아쉽다. 연습 과정 중 단원들에게 했던 말이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고 나도 서운한 부분이 많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수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장은 "지난 14일 면담 이후 두 사람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계약과 관련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회관 측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과장은 "현재 공연중인 '전우치'와 관련, 이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 정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자유로운 '리베르 콰르텟' 현악 창단 연주회 2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무료대관 공연나눔 두번째 무대

공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장 무료대관을 해주는 공연나눔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리베르 콰르텟' 현악 창단 연주회를 선보인다.

팀 이름 리베르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다. 고정된 레퍼토리나 형식에 갇히지 않는

도전 정신을 의미한다. 멤버는 목포대 음악학과 동문인 남도경(바이올린), 김하영(바이올린), 이한솔(비올라), 임수연(첼로)이다.

공연 첫 무대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밝고 서정적인 '현악 사중주 1번 Op. 18-1'을 선보인다. 이어 연주되는, 쇼스타코비치가 1960년 작곡한 '콰르텟 8번'은 2차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으로 황폐화된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한 인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전석 무료, 석착수 25명. 문의 010-6414-726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코로나 장기화 대비 '아트 체인지 업' 추진

(재)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주순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장기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아트 체인지 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예술가(개인·단체·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며 지원금액은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다. 사업 유형은 기성 작품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관객

개발형, 창작 과정 공유, 발표 및 실험적인 형식의 창작활동형, 참여 예술인들의 수익활동이 가능한 플랫폼 등을 제작하는 플랫폼 기반형 총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접수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업로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